시 공옥동

새싹 인연

길가에 버려진 화분이 나를 본다
화분을 움켜쥐고 안간힘을 다하던 상추 꽃대엔
보타진 허리뼈에 한 모금의 애탐이 역력하고
씨앗들은 바람결에도 싱그런 연록의 손을 꿈꾸며
마지막 혼신을 다해 운다
상추 꽃대에 내 손이 가까워지니 안아 달랜다

나는 화분을 보듬었다
한 바가지의 생명수가 그들에게 스민다
포근함이 구석구석 내 몸을 빨아들이는 순간
엄마는 아이들을 보듬고 눈을 감는다

내 죽어 거름 되고 아니 흙이 되어도 좋으리
여기 새 생명을 내리소서

약력

▲문학예술 등단, 한국문학예술가회 신인상
▲광주문인협회 상임부회장, (사)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 창립회장
▲학리공옥동문학공간 대표
▲문병란문학상 특별상
▲시집 : '마음이 마음으로 느낄 때', '그리워 차마 지울 수 없는 사연' 외 다수

시 김삼옥

삼한사온 2

입춘날 문밖 나설 때 내게 보이던 것은
나뭇가지 차디찬 휘파람 소리 전율에서부터다

산자락 나뭇가지들 유연성 있게 흔들이며
대자연의 절기 따라 미루나무 자유스럽던
당당한 핏줄기 돌았던 모습들이

불규칙한 기상 앞에 제 몸 하나 제 생각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뜻일까만
눈, 비바람 앞에 힘없는 자연의 품세를 보았다

살아오면서 자연의 숭고한 리듬 아닌 삼한사온
불규칙한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는 과학문명이 하늘을 노하게 했나보다

약력

▲서석문학, 한국문인 시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광주문인협회 이사
▲격월간 문학 수 이사
▲제2시집 '그때가 행복했었다' 외 공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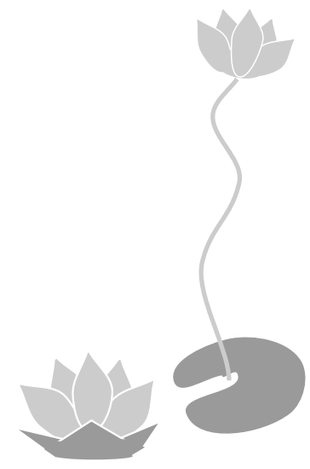
시 이여울

연꽃

말랑말랑한 기억 움켜진
물의 문이 열리며
누군가
간절히 그립고 보고픈 날
함초롬히 피어 있는 널
만난다

진구렁 속에서도
희고 맑은 물의 속살처럼
순수 그대로 간직하며
탁한 숨골 뚫듯
혼탁한 마음 깨끗이 씻어내고
살며시 향내 묶으며
웃음 짓는 너

물의 바깥으로 상처 흘리는
꽃심이 젖고 젖어
한세상 서러움이어도
흐르는 눈물 곱게 접어
너를 닮은 꽃 되리.



약력

▲'아시아서석문학' 시 등단, 전문 시낭송가
▲한국문인협회, 한국예술인협회 회원
▲광주문인협회 시분과부위원장, 이사
▲광주시인협회 부회장, 아시아서석문학회 회장 역임
▲수상 : 광주문인협회 공로상(2회), 광주시문학상
▲시집 : '걸음걸음 보랏빛' 외 다수

수필 오경심

빈 석작

명절이면 생각나는 것이 떡이다.

지금은 떡집도 많고 떡의 종류도 많아서 언제 어디서나 골라서 사 먹을 수 있는 기호품이 되었지만, 사십여 년 전만 해도 명절이나 행사 때가 아니면 접하기 어려운 귀한 음식이었다. 설 대목이 되면 며칠 전부터 방앗간 앞에서 길게 줄을 서고 집집마다 멥쌀로는 흰떡과 떡국대를 빼고, 찹쌀로는 콩떡과 쑥떡을 했기 때문에 방앗간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밤을 새워야 떡을 해서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러한 명절 준비는 당연히 며느리인 내 차지였다.

친정어머니는 학교만 다니다 바로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집을 떠나버린 딸이 몹시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결혼하기 전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하다가 막상 가르칠 기회도 없이 시집을 보내버린 딸이 보고 싶을 때면 가끔 떡을 해서 가지고 올라오셨다. 엄격했던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나를 대 놓고 칭찬을 하거나 자랄 때의 조신함을 자랑해서 당혹스럽기도 했다. 명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식구가 많았던 우리 집에 떡을 해서 이고, 들고 왔다가 바쁘게 돌아가곤 했다. 당신도 제사가 많은 집의 종부 아닌가. 어머니의 바쁜 생활을 알고 만류해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 해 설 대목이었다. 어머니가 떡을 가져다 놓고 바로 가셨다는 소식을 함께 살던 동서가 전했다. 우리도 명절 준비를 많이 하는데 떡이라도 해서 내 일손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뭉클하게 전해지면서 가슴이 울컥했다. 떡만 내려놓고 바로 가셨다는데 버스나 제대로 타셨을지 몰라 걱정이 되었다. 퇴근 시간을 조금 서둘러 대인동에 있는 시외버스 공용정류장으로 갔다. 시골 어른이 복잡한 도시의 정류장을 찾아 오고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명절 대목에 무거운 짐을 들고 왔다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셨는지, 아니면 길을 헤매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을 하며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헛걸음일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의 그림자라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발 디딜 틈도 없는 정류장에서 석작을 머리에 이고 사람들 속에서 흔들리는 어머니의 낭자머리가 보였다. 아수라장 속을 비집고 사람들 속에서 이리저리 밀리고 있는 어머니 곁으로 갔다. 어머니 머리 위에 올려진 석작을 두 손으로 내리는 순간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가벼운 빈 석작. 우리 집에도 분명 싸드릴 만한 과일도 있었는데 아마도 어머니가 한사코 털고 나오셨겠지만, 빈 석작을 들고 보니 서러웠다. 그때는 아들 가진 집과 딸 가진 쪽의 입장이 왜 그렇게 달랐는지 모르겠다. 어머니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울었던 생각이 난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첫 명절을 맞자 어머니가 몹시 그리워졌다. 일생을 오로지 딸 하나를 위해 당신을 모두 주고 빈손으로 떠나간 어머니, 어머니와의 인연이 이렇게 억울하고 허망하게 끝날 줄은 몰랐다. 세상에 널려 있는 좋은 말들 중에서 그 어떤 말도 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서 먼, 먼 후일이라도 어머니와 내가 다시 만나리라는 생각은 더 막연하다. 삶도 죽음도 뜬구름 같이만 느껴질 뿐이다. 영겁의 시간 속에서 찰나에 불과했던 당신과 나의 인연. 그 소중한 시간을 송두리째 주기만 하고 가신 어머니.

해마다 봄은 다시 찾아오고 꽃은 또 피어서 우리를 맞아준다.

어머니를 뵈러 집이 아닌 산소로 갔다. 어머니 이름이 새겨진 묘비만이 나를 맞는다. 다정한 그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무심하게 지나쳤던 어머니와의 시간들이 가슴을 적신다. 내가 살아온 힘이 바로 어머니였음을 늦게나마 깨닫고, 우리 가족들이 만든 송편을 어머니 영전에 올렸다.

약력

▲교육대학원 석사
▲'수필과 비평'으로 등단(2001)
▲광주문인협회 이사, 곡성문인협회 회원
▲수필집 : '눌러쓴 편지'